

# ‘잊혀진 계절’의 문법성과 교육적 함의

김중수 하단중학교 교사

- I. 머리말
- II. ‘잊혀진 계절’의 비문법성
- III. ‘잊혀진 계절’의 문법성
- IV. ‘잊혀진 계절’의 교육적 함의
- V. 맺음말

## I. 머리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를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이용 노래, 「잊혀진 계절」)

인용된 노래의 제목인 ‘잊혀진 계절’은 ‘계절이 잊혀지다’를 ‘관형절+머리명사’로 바꾼 표현이다. ‘잊혀지다’는 ‘잊다’에 피동접미사 ‘-히-’가 한번 결합하고 피동의 보조용언 ‘-어지다’가 한번 더 결합한, 이른바 ‘이중 피동’ 표현이다. 중등학교에서 ‘이중 피동’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힌 계절’이나 ‘잊어진 계절’보다 ‘잊혀진 계절’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고, 『우리말문법론(고영근·구본관, 2008)』이나 『학교문법론(이관규, 2004)』 같은 문법이론서에서도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딱 잘라 규정하지 않는다. ‘피동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과 이론 문법에서의 문법성 판단이 갈리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표현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을 각각 살펴보고, 중등학교 문법 교육에서 ‘잊혀진 계절’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잊혀진 계절’의 비문법성

임홍빈(2000)에 따르면 학교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 사실을 다루게 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문법 사실에 관하여 문법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능한 한 배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어를 그 소재 언어로 하는 반면 반드시 공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임홍빈, 2000: 22).

규범 문법은, 반드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에서 학교 문법과 차이를 가지며 공적인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학교 문법과는 큰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법 사실에 관하여 문법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허용하지 않는다(임홍빈, 2000: 22).

이렇듯 학교 문법과 규범 문법은 다른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이 다루는 ‘문법 사실’은 거의 일치한다. 성낙수(2010: 230)에서 밝혔듯이, 1985년 단일한 국정 문법 교과서를 만들면서 그 교과서 속의 문법 용어와 설명이 규범 문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2000)가 규범 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 이후 국어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바뀌면서 학교 문법에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은, “문법 용어는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것을 참조하도록 한다 … ‘국어의 역사’는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시대 구분 방법에 의해 시대를 구분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09: 10)”라고 하며,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규범 문법적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학교 문법은 ‘교과서’라는 형태로, 규범 문법은 ‘사전’과 ‘국어어문규정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학교 문법과 규범 문법의 문법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관점이 일치함을 예상할 수 있다.

학교 문법과 규범 문법에서 ‘잊혀진 계절은’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서 규범 문법의 정오 판정을 담당하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상담 사례 모음’<sup>1</sup>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는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되어 있다.

‘잊히다’라는 괴동사에 또 괴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붙인 ‘잊혀지다’는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입니다. 다만 ‘잊혀지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견해<sup>2</su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up>3</sup>

<표 1>에서 정리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를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표 1.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이중 괴동 표현 언급

이중 괴동 언급 없음	천재교과서(김), 천재교육(노), 지학사(방) <sup>4</sup>
‘생각되다’ 류만 있음	교학사(남)

- 1 계시판 소개말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 게시판의 내용 중 빈도가 높거나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흔히 언급되는 것들을 뽑아 모은 것들입니다.(2014년 1월 고침)”
- 2 ‘아래와 같은 견해’란, 이익섭·채완(1999)의 『국어문법론강의』의 견해를 말하며 이는 (3 나)의 내용과 거의 같으므로 따로 인용하지 않음.
- 3 [http://korean.go.kr/front/mcfaq/mcfaqView.do?mcfaq\\_seq=3190](http://korean.go.kr/front/mcfaq/mcfaqView.do?mcfaq_seq=3190)(검색일: 2015.4.24).
- 4 교과서를 구분하려는 목적이므로 교과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시를 따른다. 예를 들어 천재교과서(김)은 김종철 외(2012)를, 천재교육(노)은 노미숙 외(2012)를 가리킨다. 이후 교과서 속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학술논문의 인용방식을 준수하겠다.

쓰여지다 열려지다 보여지다 담겨지다 먹혀지다  
밀겨지다 나뉘어지다 모여지다 바뀌어지다 읽혀지다  
잊혀지다 꽂혀지다 쓸려지다 풀려지다 불려지다  
감겨지다 불리우다

비상교육(김), 좋은책신사고(민), 금성출판사(박),  
좋은책신사고(우), 미래엔(윤), 비상교과서(이),  
두산동아(이), 대교(장), 두산동아(전), 비상(한)

비상교육(김), 금성출판사(박), 미래엔(윤), 두산동아(이), 대교(장), 두산동아(전)에서는 교과서 본문에는 언급이 없고 이중 피동이 잘못되었다는 학습 활동이 있다. 비상(한), 좋은책신사고(민), 비상교과서(이), 좋은책신사고(우)에는 이중 피동이 잘못되었다고 별도의 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1라)에서는 피동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며 이중 피동을 긍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끝내 그것을 인정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결론 내린다.

(1) 가.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나타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예들은 ‘모이다, 꽂히다, 밀기다’나, ‘모아지다, 꽂아지다, 밀어지다’로만 표현해도 충분히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다.(한철우 외, 2012: 233)

나. 이런 보기로는 ‘담겨지다’ 말고도 ‘감겨지다, 놓여지다, 보여지다’ 등 많이 있다. 모두 ‘감기다, 놓이다, 보이다’로 써야 자연스러운 것들이다.(민현식 외, 2012: 144-145)

다. ‘보여지다’, ‘요구되어지다’와 같이 과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연달아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이중 피동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이관규 외, 2012: 141)

라. 문학, 신문, 잡지 등을 보아도 ‘잊혀지다’가 많이 쓰이고, ‘잊히다’는 찾아보기 어렵다. ‘잊히다’는 죽은 말이 된 셈이다. ‘잊히다’를 부려 쓴 훌륭한 글들이 아깝다. (중략) 표준말 논의에서 ‘잊혀지다’를 ‘잊히다’와 같은 말 또는 강조 형태로 인정하려 한다면, ‘되어지다, 놓여지다, 담겨지다, 막혀지다’ 등의 이중 피동 표현들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언어에서도 변화는 읽어야겠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우한용 외, 2012: 153)

그런데, 교과서 문법 설명의 내적 논리에 따라 이중 피동이 왜 비문법적

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교과서에서는 이중 피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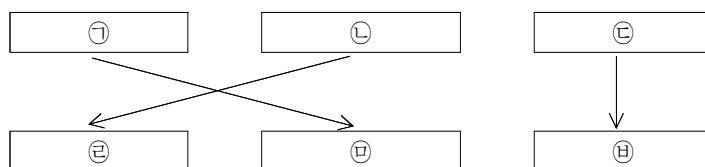
왕문용(2006: 357)에 따르면 제7차 <문법> 교과서의 피동에 대한 설명은 (2)와 같이 구분되며, 각각을 채택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 (2) 가. '-이 -, - هي -, -리 -, -기 -'에 의한 파생적 피동문
- 나. '-되다'에 의한 파생적 피동문
- 다. '-어지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문
- 라. '-게 되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문

**표 2. 검정 국어 교과서 출판사별 피동의 형식 구분**

피동의 형식	교과서	이론서
(2가), (2다)	금성출판사(박), 비상교육(한)	남기심 (2001)
(2가), (2다), (2나)	교학사(남)	이관규 (2004)
(2가), (2다), (2라)	비상교과서(이) 대교(장)	김광해 외(2001)
(2가), (2다), (2나), (2라)	좋은책신사고(민), 좋은책신사고(우), 지학사(방), 미래엔(윤), 두산동아(전), 두산동아(이), 천재교과서(김), 천재교육(노)	나찬연 (2009)

교과서마다 설명하는 피동의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2가), (2다)는 공통되며, 이를 통해 (2가)와 (2다)가 피동의 원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종의 교과서에서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를 그림1처럼 설명한다. 이는 나찬연 (2009: 485) 등의 문법이론서에서도 쓰이는 방식으로,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그림 1.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도식**

출판사별로 ⑦~⑩에 들어가는 용례는 다른데, 3종만 예를 들면 〈표 3〉과 같다.

**표 3. 출판사별 피동 표현 예문**

	⑦	⑧	⑨	⑩	⑪
신사고 (우)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잡았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신사고 (민)	별이 지유를 쏘았다	쏘았다	지유가	별에	쏘였다
	주어 목적어	능동사	주어	부사어	피동사
미래엔 (윤)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쫓는다	쥐가	고양이에게	쫓긴다
	능동 표현		피동 표현		

〈그림 1〉의 ⑪에 ‘잡히다, 쏘이다, 쫓기다’ 대신에 ‘잡아지다, 쏘아지다, 쫓아지다’를 넣는 방식이 ‘-어지다’를 이용한 피동 표현이다. 그리고, ⑩에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이미 피동문이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또다시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붙으면 이른바 ‘이중 피동’이 된다. 이를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이중 피동은 의미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라고만 말하면,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의미’만으로 설명하면 ‘당하다’ 등이 피동이 아닌 이유, ‘때리다’에 대응하는 ‘맞다’가 피동이 아닌 이유까지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지다’를 피동이 아니라 ‘상태 변화’ 또는 ‘기동’의 의미로 본다면 이중 피동이 비문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중 피동이 잘못된 표현임을 설명할 때 〈그림 1〉과 같은 피동 도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문장의 구조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문장의 의미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둘 다를 적절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잊혀진 계절’을 〈그림 1〉의 도식에 적용한 것이다. 〈그림 2〉의 B → C 과정에서 ‘-어지다’가 이중으로 붙을 때에는 승격할 목적어도 없

어서 구조상 피동이 불가능하고, 이미 주어로 만들어진 ‘계절이’를 다시 부사어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어색하다. 언중들이 이중 피동을 통해 표현하려는 의미는 <그림 2>의 C가 아니라 B와 가깝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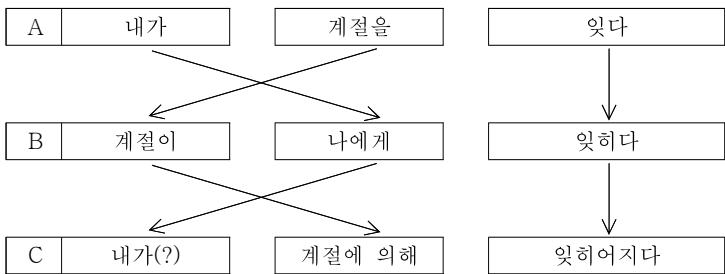


그림 2. 1차 피동이 2차 피동을 이루어지는 도식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중 피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잘못된 피동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불려지다’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도식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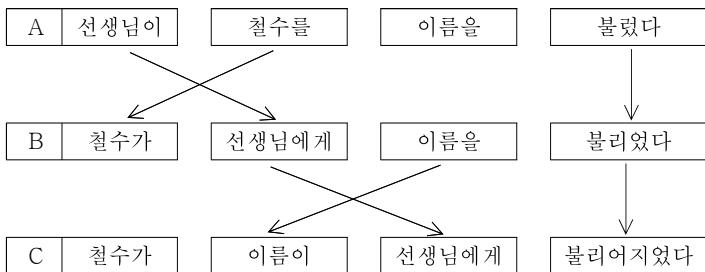


그림 3. 자연스러운 이중 피동의 가능성

우선 <그림 3>의  $B \rightarrow C$  과정에서 ‘철수가’라는 주어가 부사어 자리로 이동하지 않는 것은 ‘행위주’가 아니기 때문임은 당연하다. ‘불려지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깎여지다, 잘려지다’ 등과 같이 목적어가 중출되는 문장은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중 피동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밀한 것이지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중 피동의 형태일 수 없고, 교과서의 설명처럼 이중 피동은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다만, ‘이중 피동’이라는 말이 존재함으로써, 마치 ‘이중의 피동’이 가능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 피동’이라는 말 대신 이익섭(2008: 273-274)에서처럼 ‘잉여적 피동, 군더더기 피동’이라고 불리야 할 것이다.

### III. ‘잊혀진 계절’의 문법성

그런데, 학교 문법과 달리, 학문 문법(또는 이론 문법)에서는 이중 피동은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다음은 <2009학년도 중등 임용 2차 국어(2교시) 시험> 3번 문항이다.

3-2. (라)의 ①~④에서 이중피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 그 근거를 설명한 후, 이중 피동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보기 1>의 학생 A와 B 각각에 대한 지도 방향을 <보기 2>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20 ±3줄) [14점]

#### <보기 1>

학생 A: 오늘 지하철에서 광고를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 학교를 선택하면 굳게 닫혀진 취업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 이 문장에서 ‘닫혀진’은 잘못된 표현 아닐까?

학생 B: 나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학생 A: 아니야. 지난 학기 국어시간에 이중 피동은 잘못된 표현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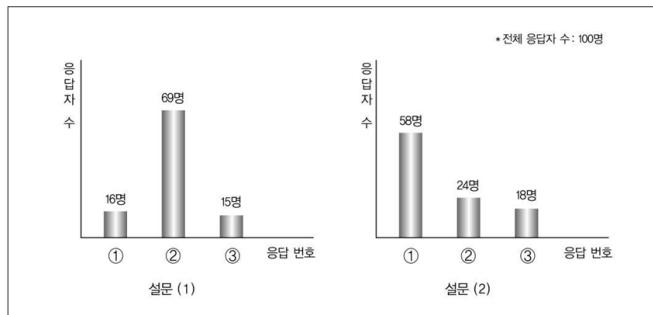
학생 B: 나도 그렇게 배운 것 같기는 한데, ‘닫힌’보다는 ‘닫혀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뭐랄까, 더 강조되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학생 A: 그래도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써야지.  
학생 B: 그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해.]

### 〈보기 2〉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이 무엇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 (1) 세월이 흐르면서 그도 점차 우리들의 기억에서 \_\_\_\_\_ 사람이 되었다.  
① 잊힌      ② 잊혀진      ③ ‘잊힌’과 ‘잊혀진’ 둘 다
- (2) 오늘은 어제와 달리 고기가 잘 \_\_\_\_\_.  
① 잡힌다      ② 잡혀진다      ③ ‘잡힌다’와 ‘잡혀진다’ 둘 다



학생 A와 학생 B를 각각 지도하라는 문제의 방향이나, ‘잊혀진’이라는 이중 피동 표현이 자연스럽다는 설문 내용을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이중 피동 중에서 많은 언중이 자연스럽게 느낀다면 문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문항임을 알 수 있다. 국어 교사를 뽑는 시험에서 이런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이중 피동 표현에 대해 엄격하게 규범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문법 교육관의 반영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상반기 국가직 9급 공무원 국어과 시험〉 문항에 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문 16. 표준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 ① 그는 옛 여자 친구의 결혼 소식에 저으기 놀란 눈치였다.
- ② 10년 만에 나타난 그는 영판 딴 사람이 되어 모든 이를 감동시켰다.
- ③ 여자들은 약간 까탈스러운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 ④ 서해 바닷가의 아름다운 놀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잊혀지지’가 비문법적인 표현이므로 ‘정답이 없는 문항’이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서는 최종적으로 ④로 확정 고시되었다. ‘잊히다’도 표준어이고 ‘-어’도 표준어, ‘지다’도 표준어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보인다.

또한 국어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국어 문법 이론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눈에 띈다.

(3) 가. 이들은 대부분 이른바 피동을 중복 사용한 잘못된 표현으로 지적되는 예들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다’, ‘잊히다’, ‘찢기다’만 쓰는 것이 오히려 이  
상하게 느껴진다. 피동사가 다시 ‘-어지다’를 갖게 되는 것이 의미를 강화  
하기 위한 것인지 접미사와 ‘-어지다’의 의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앞  
으로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고영근 외, 2008: 351)

나. 한편 피동동사에 다시 ‘-어지다’가 덧붙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개 ‘-어지  
다’를 군더더기로 써 잘못 쓴 경우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도 두 형태가  
공존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중략)

(13) a. 이 논문은 주제가 매우 참신해 보인다(\*보여진다).

b. 이 논문은 주제가 매우 참신하다고 보여진다(??보인다).(이익섭, 2008:  
273-274)

다. 피동법의 형성 용례

순서	용언	단형 피동	장형 피동	중첩 피동	비고
ㄱ	보다	보이다	보아지다	보여지다	

(이하 표 생략)

(중략) 뿐만 아니라, 단형 피동에다가 다시 장형 피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단형 피동이 가능한 타동사만이 중첩 피동이 가능하고, 단형 피동이 불가능한 것은 중첩 피동도 불가능하다.(이관규, 2004: 286-287)

(3가)에서는 경우에 따라 올바른 표현이 오히려 어색하므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3나)에서는 때에 따라 두 형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3다)에서는 아예 ‘중첩 피동’을 인정하고 ‘보여지다’를 비문 표시(\*) 없이 사용하였다. ‘중첩 피동’이 바로 이른바 ‘이중 피동’인 것이다.<sup>5</sup>

이러한 이론서의 내용을 학교 문법에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중 피동을 인정할 때에도 이중 피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설명은 필요하다. (3)의 설명들은 그 근거를 모두 ‘의미’에서 찾고 있다. 이중 피동 표현을 비문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3다)는 ‘중첩 피동’을 설정함으로써 앞서 <그림 3>의 B → C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장의 구조적 모순도 해결하였다.

피동 표현이 겹치더라도 의미가 자연스러우면 된다는 식의 설명이 논리적이지 않다면 조오현(1995), 유혜원(2000), 이정택(2004)에서처럼 ‘-어지다’가 피동의 표현이 아니라 ‘과정상’, ‘자동사화’, ‘상태의 변화’ 등을 표현할 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어지다’가 피동이 아니라면 피동사와 ‘-어지다’의 결합은 ‘이중 피동’이 아니므로 애초에 문법성을 따질 이유도 없어진다.

남수경(2011: 229)처럼 ‘-어지다’ 자체를 피동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피동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타동사와 결합하지 않는 ‘-어지다’는 피동의 표지가 아니며 따라서 이미 자동사화한 피동사에 ‘-어지다’가 붙은 경우도 ‘이중 피동’이나 ‘중첩 피동’으로 볼 필요가 없다.

5 다만 같은 저자(이관규)가 지은 비상교과서(이) 141쪽에서 ‘보여지다’를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으로 규정한 것을 통해 학문 문법(또는 이론 문법)과 학교 문법(또는 규범 문법)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전영철(2008: 90)을 참고할 때, 이중 피동에 대한 관점은 <표 4>와 같이 정리된다.

**표 4. 이중 피동에 대한 관점들**

이중 피동 허용	-어지다: 피동	이중 피동은 피동의 강조	a
이중 피동 허용 안 함	-어지다: 피동	이중 피동은 잉여 피동	b
	-어지다: 피동 아님	이중 피동의 개념이 없음	c

<표 4>의 a는 (3다)의 이관규(2004), b는 국어 교과서, c는 조오현(1995), 유혜원(2000), 이정택(2004) 등의 관점이다. 그런데 c의 관점에 따라 이중 피동의 문법성을 설명하려면 ‘-어지다’가 피동 표현이라는 전제 자체를 부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2가)와 같은 국어 교과서 상의 ‘피동 표현’이라는 문법 범주 자체가 흔들린다. ‘이중 피동’이라는 예외를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 전체를 흔드는 일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리고 임홍빈(2000: 12)의 말처럼 이론이 분분한 현상이나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현상은 학교 문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학교 문법의 체계 내에서 ‘잊혀진 계절’의 문법성을 설명할 방법은 없을까?

학교 문법상 ‘잊혀진’의 바른 표현으로 제시되는 것은 ‘잊힌’이다.

(4)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정지용, 「향수」)<sup>6</sup>

최근 들어 (4)가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혀질 리야’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1라)에서 “‘잊히다’를 부려 쓴 훌륭한 글들이 아깝다.”라고 한 것처럼, (4)의 ‘잊힐’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다. (1라)에

6 ‘잊혀진’과 ‘잊힐’의 관계를 설명한 블로그에서 최초 아이디어를 얻었기에 인용 표시를 해둔다([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blua&list\\_id=3750270](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blua&list_id=3750270), 검색일: 2015.4.24).

서는 또 “‘잊혀지다’가 많이 쓰이고, ‘잊히다’는 찾아보기 어렵다. ‘잊히다’는 죽은 말이 된 셈이다.”라고 하였는데, 「향수」는 1927년작이고 「잊혀진 계절」은 1982년작이다. 1982년 이후로 ‘잊혀지다’가 ‘잊히다’를 밀어낸 것일까?

(5)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  
다.(김승우,「무진기행」, 밑줄 필자)

(5)는 1964년작인데, 1982년 이전임에도 ‘잊혀질’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5)의 밑줄 부분이 비문이 아니라면 (3)에서 보듯이, ‘잊혀질’은 ‘잊힐’을 강조하는 의미일 것이다. (5)를 ‘피동 표현’을 중심으로 단순화한 뒤, 대당 능동문을 만들면 (6)과 같다.

(6) 가.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해 잊혀진다.  
나. 세월이 모든 것을 잊는다.

(6가)와 (6나)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피동문’과 ‘대당 능동문’의 의미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잊는 행위주가 될 수 없고 의미상 ‘세월’에 의해 ‘나’가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월’은 사동주가 아닐까? (6가)의 의미는 (6나)보다는 차라리 (7)에 가깝다.

(7) 세월이 모든 것을 잊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잊혀지다’에 대해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잊혀지다’가 피동 후 피동 즉, 이른바 ‘이중 피동’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7)과 같이 ‘사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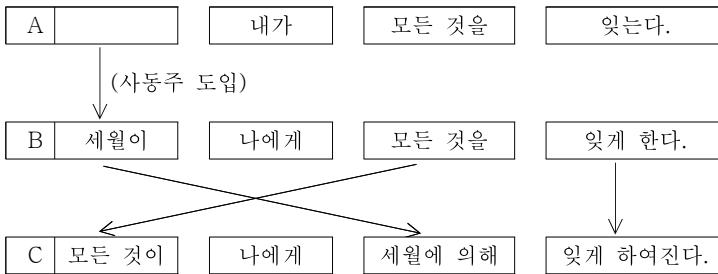


그림 4. ‘잊혀지다’의 사동 후 피동 가설

〈그림 4〉의 C는 그 자체로 정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사각형 테두리로 구분한 문장의 각 단위의 구조와 기능을 〈그림 5〉의 C와 비교하기 위해서 도식화만 하였다. 문장을 바로잡는 것은 (9)~(12)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그림 4〉의 B에 쓰인 장형 사동 ‘잊게 한다’를 단형 사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잊다’의 사동사여야 하고, 잠정적으로 ‘\*잊히다’가 될 것이다. 사동사 ‘\*잊히다’를 사용하면 (5)의 의미는 (8)과 같이 해석되고, 이제 의미가 자연스럽다.

(8) 세월이 모든 것을 잊힌다.(사동문) → 화자가 모든 것을 잊는다.(주동문)

↳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해 잊히-어진다.(피동문)

이와 같은 사동문의 피동 표현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림 5〉와 같이 도식화하면 지극히 논리적이다.

〈그림 5〉의 C는 ‘밥이 동생에게 먹히었다’ 또는 ‘밥이 동생에게 먹혀졌다’와는 분명 다른 의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알리다-알려지다, 벗기다-벗겨지다’ 등 얼마든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잊혀진 계절’에 적용해 보자. ‘잊혀진’은 ‘이중 피동’인가, ‘사동 후 피동’인가? ‘잊혀진’이 강조의 의미를 가진 ‘중첩 피동(이관규, 2004)’ 또는 ‘군더더기 피동(이익섭, 2008)’이라면 ‘잊힌’과 기본적인 의미가 같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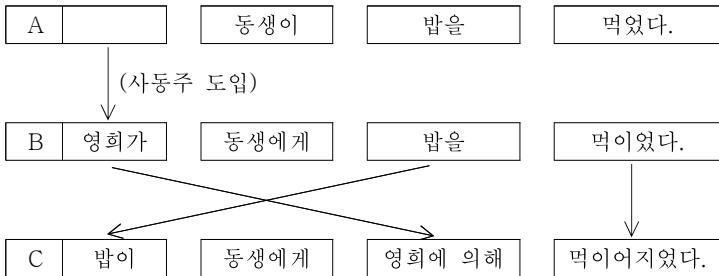


그림 5. 사동문의 피동 표현

(9) 가. 잊혀진 계절

나. 계절이 (나에게) 잊-히어졌다.

다. (내가) 계절을 잊-었다(?)

(9다)에 '(?)'를 표시한 이유는 노랫말에 함축된 의미로 볼 때 정말로 '내가 잊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자는, 노래의 시작을 분명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하였다. 노랫말 속에서 '계절'은 '나'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수 없는 꿈을 꾸게 하는 계절은 '나'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나'는 계절을 잊기 싫지만 '나'로 하여금 계절을 잊게 하는 '그대' 또는 '세월'이라는 존재가 가상으로 설정되어야 해석이 자연스럽다.

정리하면, 이 노랫말은 어떤 주체가, 나로 하여금, 잊고 싶지 않은 그 계절을, 잊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 사동주를 '세월'이라고 가정해 보면 (10가)와 같은 사동문이 성립하며, 그것은 주동문 (9다)에 '세월'이라는 사동주를 도입한 방식이다. 그리고 '잊게 한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사동사'로 잠정 설정한 '\*잊히다'를 이용하면 (10가)는 (10나)와 같은 단형 사동문이 된다.

(10) 가. 세월이 나에게 계절을 잊게 한다.

나. ?세월이 나에게 계절을 잊힌다.

이제 (10나)에서 화자의 ‘행위자성’을 박탈하여<sup>7</sup> ‘잊고 싶지 않은’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려면 ‘계절’을 앞세운 ‘-어지다’ 피동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9가)의 ‘잊혀진’은 바로 ‘사동사’ ‘\*잊히다’에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된 ‘잊혀지다’일 것이고, (9나)는 (9나')처럼 복원해야 한다.

(9나') 계절이 (세월에 의해) (나에게서) 잊히-어졌다.

즉, 대당 능동문에 비추어 볼 때, ‘잊혀진 계절’의 ‘잊혀진’을 ‘이중 피동’으로 보기보다 ‘사동사의 피동’으로 해석할 때, 노랫말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와 닿는다. 우리는 잊고 싶지 않은 일이 끝내 잊히게 되었을 때, ‘잊혀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다음과 같은 예문이 나온다.

(11) ¶ 죽어서야 자식들에 의해 오명이 벗겨졌다.

이 문장은 (12)와 같은 단계로 능동(주동) 표현이 사동 표현을 거쳐 사동 후 피동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12) 가. X가 오명을 벼다.

나. 자식들이 X에게 오명을 베기다.

다. 오명이 자식들에 의해 X에게서 벗겨졌다.<sup>8</sup>

7 유혜원(2000: 187)에서 ‘-어지다’가 행위자성이 박탈된다고 말한 바와 같다.

8 (12나) → (12다) 단계에서 ‘X에게’가 ‘X에게서’로 바뀌는 점이 <그림 5>의 B → C 단계에서 ‘동생에게’가 유지되는 점과 다르다. 시동문의 목적어가 사동문의 행위주에게 가까워지는 경우는 ‘-에게’가 유지되고(먹이다 입히다), 사동문의 목적어가 사동문의 행위주에게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에게서’로 바뀐다(잊히다, 벗기다).

그러나 (11)의 문장에서 (12가)와 같이 X가 스스로 오명을 벗는 의미는 약화된다. 이렇게 행위주가 약화될 때, 사동의 대응문으로 ‘주동문’ 대신 ‘피동문’이 선택되는 것이다.

‘잊지 않았다’는 노랫말의 해석만으로 가상의 사동사 ‘\*잊히다’까지 설 정해야 하는 것이 억지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동남 방언<sup>9</sup>의 성조를 참고 하면 사동사 ‘\*잊히다’의 존재는 오히려 논리적인 필연이다. 동남 방언의 성 조를 체계화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음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 다는 사실은 공통이다. 피동사와 사동사의 가장 높은 음은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sup>10</sup>

(13) 가. 피동: 먹•혔따

나. 사동: 먹잇다(김주원, 1991: 595)

(13가), (13나)의 윗점이 표기는 다르지만, 그 어절의 가장 높은 음을 가 리키는데, 이는 표준어 어휘를 발음할 때에도 그대로 이어지며, 뒤에 ‘-어지다’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유지된다.

(14) 가. 피동: 먹•히다 – 먹•혀지다

나. 사동: 먹이다 – 먹여지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 방언 화자에게 피동문을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의 말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15) (5)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빨리었다.

9 방언권을 설정하고 이를 짓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는 이기갑(2003)의 명칭을 따른다.

10 여기서는 (13)의 용례가 실린 김주원(1991)의 표기 방식을 따른다.

월 (5)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월이다. 즉 사동문(使動文)으로 볼 수도 있고 피동문으로도 볼 수 있다. 김영일(1980: 39-40)

동남 방언 화자에게 (15)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월로 보이지 않는다.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형태가 같아 보일 뿐, 말로 표현하면 전혀 혼동되지 않는다.

- (16) 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빨리었다.  
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빨리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16가)는 피동문이고, (16나)는 사동문이다.

그렇다면 ‘잊혀진 계절’은 어떠한가? ‘잊혀진 계절’에서 ‘잊혀진’의 실제 성조는 ‘잊혀진’이다.<sup>11</sup> 만약 ‘잊혀진 계절’의 ‘잊혀지다’가 피동의 중첩이라면 ‘잊혀지다’여야 한다. 그런데 ‘잊혀지다’의 성조는 (14나), (16나)와 같고 이는 ‘잊혀지다’가 사동사와 ‘-어지다’의 결합형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즉, ‘잊혀진 계절’의 ‘잊혀지다’는 ‘먹혀지다, 끊겨지다’ 류의 ‘이중 피동’이 아니라 ‘밝혀지다’와 ‘벗겨지다’ 류와 같은 ‘사동 후 피동’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중 피동을 인정하지 않는 규범 문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어지다’ 자체의 기능이나 의미를 재설정하는 이론 문법을 도입하지 않고도 교과서의 논리만으로 ‘잊혀진 계절’의 문법성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11 부산 지역 화자 기준이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같은 진주, 남해, 울산 출신 화자는 직관적으로 (14가)처럼 발음하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동의 “잊히다”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에 비해 밀양, 부산 지역 출신 화자는 (14나)의 성조를 당연시한다. 타 지역 사람들이 듣기에 ‘억양이 세다’고 하는 것은 특히 밀양, 부산 사람이 이처럼 성조가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같은 동남 방언이라도 경북 지역의 성조는 완전히 다르다. 경남과 경북의 사동사 성조의 차이는 김세환 (2014: 154)에서 ‘먹인다’의 방언지도를 통해 정리된 바 있다.

## IV. ‘잊혀진 계절’의 교육적 함의

II장과 III장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잊혀지다’가 ‘잊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경우와 ‘잊게 하여지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경우를 구별할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즉, 「향수」에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혀질리야’라고 쓴다면, 규범적으로 잘못된 표현이고, 「무진기행」에서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해 잊혀질 수 있다’라고 쓴 것은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국어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잊혀진 계절’은 후자임을 말하였다.

그러나 잘못된 표현이 널리 쓰일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동형 “잊히다”를 설정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잊혀지다’가 ‘잊히다’의 영역을 거의 대체하는 현재 상태에서 ‘가상적 재구형’을 설정하는 논리와 ‘언중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논리 중 어느 것이 교육적인가? 이러한 논의에 담긴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측면에서의 교육적 함의이다. 이중 괴동 표현을 인정하는 이론 문법과 인정하지 않는 학교 문법의 괴리는 교사에게 딜레마 상황이다. 각종 매체에서 ‘잊혀진’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이론 문법서에서 조차 그 표현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교과서에서만 틀렸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럴 때, 교사는 ‘잊혀진’이 사용된 각 용례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각각에 담긴 정확한 의미 해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잘못 사용된 경우와 창조적으로 사용된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교과서나 이론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문법의 탐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와 시범 보이기가 있어야 학생들에게 문법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흥미로운 대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괴리는 교사에게 딜레마가 아니라, 그 괴리가 해결되는 과정과 논리를 학생들에게 소개하여 모국어 화자로서 학생들이

우리말의 문법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만드는 탐구의 원천이 된다.<sup>12</sup>

둘째, 학습자 측면에서의 교육적 함의이다. 학습자들이 이중 피동 표현의 비문법성에 대한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를 막을 수 있다. 교과서와 수업을 통해 이중 피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규범을 익힌 학습자 중 일부는 그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 그런 학습자는 ‘잊혀지다’의 ‘-혀지다’와 같은 표현을 본 순간 틀린 표현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탐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밝혀지다, 알려지다’ 등과 같이 얼핏 보기에도 이중 피동 표현처럼 보이는 말들까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잊혀진 계절’의 문법성을 III장과 같이 설명해 준다면, 학습자들은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판단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셋째, 문법 교육 내용의 측면이다. 우선, 학교 문법에서 피동 표현으로 명시하는 ‘-어지다’의 기능이나 의미 변화 없이 ‘잊혀진 계절’을 문법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관성이 확보된다. “이중 피동은 잘못된 표현인데 언중이 널리 쓰고, 점차 새로운 의미 영역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허용한다.” 와 같은 설명은 아직 문법을 배우는 중인 학생들에게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어지다’를 ‘상태 변화’, ‘기동’으로 보는 관점을 학교 문법에 들여오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점에서 ‘사동 후 피동’으로 ‘잊혀진 계절’의 문법성을 설명하는 것은 내적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사동 후 피동’ 또는 ‘사동 후 사동’, ‘피동 후 사동’ 등으로 사동, 피동의 교육 내용을 확장시켜 준다. 이는 조어론에서 ‘합성어’, ‘파생어’

---

12 교사와 관련한 교육적 함의는 익명의 심사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거의 수용하였다. 문법 연구자로서의 교사와 문법 교육자로서의 교사를 구분한 매우 타당한 지적이며, 출처를 밝혀 인용할 수 없음이 아쉽다.

를 가르친 후 ‘합성 후 파생’, ‘파생 후 합성’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17)과 같은 문장들은 지금까지 중등학교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나 문법적으로 분석해 볼 가치가 있는 문장들이다.<sup>13</sup>

(17) 가. 사동 후 사동

① 단형사동 후 장형사동: 먹다 – 먹이다 – 먹이게 하다

② 장형사동 후 장형사동: 먹다 – 먹게 하다 – 먹게 하게 하다

나. 사동 후 피동

① 단형사동 후 장형피동: 먹다 – 먹이다 – 먹여지다

② 장형사동 후 장형피동: 먹다 – 먹게 하다 – 먹게 하여지다

다. 피동 후 사동

① 단형피동 후 장형사동: 먹다 – 먹히다 – 먹히게 하다

② 장형피동 후 장형사동: 먹다 – 먹어지다 – 먹어지게 하다

라. 피동 후 피동

cf) 논리적으로 불가능: 먹다 – 먹히다 – \*먹혀지다

마지막으로, ‘이중 피동’이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절대 ‘이중 피동’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아님은 명백하다. 학교 문법에서 ‘이중 피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비문법성’을 지적하는데, ‘이중 피동’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어떤 ‘가능한’ 현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중 피동’이라는 용어는 ‘잉여 피동’이나 ‘군더더기 피동’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학교 문법에서 ‘-게 되다’는 엄연히 피동 표현의 요소인데, 만약 사동 접미사에 ‘-어지다’가 결합하는 것이 이중 피동이라면 거기에 다시 ‘-게 되다’가 결합하는 것은 삼중 피동<sup>14</sup>이 되는데, (18)

---

13 이들은 용례라기보다는 논리적 가능성이며, 학생들에게 문법적 분석을 연습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설계이다.

14 물론 전영철(2008: 98)은 이상억(1999)을 인용해 삼중, 사중 피동까지 허용된다고 하지

나)가 틀렸다면 (18다)도 이미 틀렸다. 그러므로 “‘이중 피동’도 잘못, ‘삼중 피동’도 잘못”이라고 가르칠 것 없이 “‘잉여 피동’은 잘못”이라고 하면 간편하다.

(18) 가. 계절이 잊히다.

나. 계절이 잊혀지다.

다. 계절이 잊혀지게 되다.

넷째, 문법 교육의 목표 측면이다. 문법 교육의 목표를 문법적인 탐구 능력의 신장과 문법 지식을 이용해 창조적인 언어 사용으로 설정한다면, 사동사 “\*잊히다”的 설정이 가진 교육적 함의는 매우 크다. 사전에 없는 사동사 “\*잊히다”를 임의로 설정하여 설명하는 것이 문법 교육에서 바람직한가? 우선, “\*잊히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지 않다는 점은 교육적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수필의 일부인 (19)을 보자.

(19) “저어 개명 앞 가 일허구 오는데 그때도 복지경이었나 봐. 일손을 떼구 집으로 오는데 목이 여간 말리야지. 마침 뭐라나 이름두 잊었어.... 그런데 참 양떡으로 만든 고뽀가 다 있습디다그려. 거기다 살짝 담아주는데 으수 던 물진 푸석얼음이야. 목구녕은 선뜩선뜩 허드군....”

“오, 거 앗씨구리로군 그래.” (중략)

“고작 물에 설탕 좀 타 얼쿤 거 아니겠소?”

“그렇지. 물 얼쿤 거지. 어디 얼음이나 되나. 그게 일테면 얼쿠다 못 얼쿤 게로구려.”(이태준, 「무서록」)

‘얼쿠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얼리다’의 평안 방언이라고 되어 있다. 그

---

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삼중인지 사중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러나 문맥을 통해, 그리고 ‘얼 –’이라는 어간을 통해, 학생들은 사전을 찾거나 평안 방언을 공부하지 않아도 ‘얼다’와 관련되는 ‘얼쿠다’의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이해하는, 독자로서의 중요한 감상 능력의 교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방언이나 옛말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어 문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국어 교육에서 ‘창조적인 언어 사용’에도 일정한 목적이 할당된다면, “얘들아, ‘잊게 하다’라는 뜻의 사동사를 사동 접미사를 붙여서 만들어 볼까?”와 같은 수업도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최현배(1994: 415)에는 (20)과 같이 되어 있다.

#### (20) §7. 바꾸힌 움직씨

□, ㄴ(코소리) 뒤에도 “기”가 쓰힘:

남기다, 숨기다, 넘기다, …

☒ 뒤에는 “히, 후”가 쓰힘(‘후’로 대종을 삼음이 옮겼다):

맞후다(使被打, 注文, 組成)

▣ 뒤에는 “히”가 쓰힘:

집히다(典執, 把), 입히다(被)@@

사동사를 만들 때 ‘☒’ 뒤에는 ‘히, 후’가 쓰인다고 하였으므로 ‘잊다’의 사동사는 바로 ‘잊히다’라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방언에서는 ‘놀리다’의 파동사인 ‘놀리키다(=놀림을 당하다)’가 발견되며, 심지어 ‘속이다’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속다’와 함께 ‘속히다(=속임을 당하다)’도 있고, 북한말에서는 ‘어둡다’의 사동사인 ‘어둡히다(김동찬, 2002: 70)’가 보고되는 등 비표준어에서는 접사에 의한 파생이 표준어에 비해서 자유롭다. 이러한 점을 학교 문법 교육에 응용하여 새말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수업을 하면 좋을 것이다.<sup>15</sup>

---

15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설정된 ‘창조적인 언어 사용’이나 ‘새말 만들기’의 취지와 본고

실제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사전에 얹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에 없다고 무조건 배제하는 규범적인 문법 교육을 극복하고, 학생들을 ‘작은 문법 학자’로서 ‘탐구’를 하게 교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수경(2011: 225)에서는 ‘춤이 추인다’, ‘걸음이 걸린다’와 같은 피동사를 제시하고 있다. ‘?추이 다나’ ‘?걸리다’는 모두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의미를 유추하여 논의를 이어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또한 피동문의 대당 능동문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날씨가 많이 풀렸다(남수경, 2011: 18)’ 같은 문장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날씨가 풀리다’는 ‘피동사’가 아니다.

(21) 풀리다<sup>16</sup>「동사」

- 가. 「1」「풀다[1]」「1」의 피동사. ¶ 매듭이 풀리다/올이 풀리다/운동화 끈이 자꾸 풀린다.
- 나. 「10」춥던 날씨가 누그러지다. ¶ 일기 예보에 따르면 내일은 날씨가 풀린다고 한다.

‘피동사’인 경우, 사전에서 (21가)와 같이 ‘무엇의 피동사’라는 정보를 표시한다. 이는 사동사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문법’ 또는 ‘규범 문법’의 출발은 사전이다. 그런데 ‘날씨가 풀렸다’의 ‘풀리다’는 (21나)와 같이 피동사가 아니며, 통시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본다면, ‘날씨가 풀리다’는 원래 대당 능동문을 만들 필요도, 이유도 없는 자동사일 뿐이다. 그런 예를 놓고 ‘피동문 중에는 대당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면, 현행의 학교 문법은 이미 ‘규범 문법’의 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사동의 의미를 지닌 “\*잊히다”라는 가상적 재구형태를 설정하는 교육 방법은 작위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문법이 고정불변의 지식 암기가 아니라 탐

---

의 논의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면 본 고의 논의가 무익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6 <http://124.137.201.223/search/View.jsp?idx=500256>

구가 가능한 대상임을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본다.

## V. 맷음말

대중가요의 제목인 ‘잊혀진 계절’의 ‘잊혀지다’는 흔히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노랫말의 의미 해석, 대당 능동문과의 의미 비교, 동남 방언의 성조를 이용하여 ‘잊혀지다’가 문법적으로 적절하며 ‘잊히다’의 강조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고 있음을 밝혔다.

‘잊다’의 사동사 ‘\*잊히다’를 임시적으로 설정하여 ‘잊혀진 계절’의 의미는 ‘잊고 싶지 않았지만, 제3의 주체가 화자로 하여금 계절을 잊게 하였고(사동), 계절의 입장에서는 화자의 행위에 곧바로 잊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주체에 의해 부림 받은 화자의 행위에 의해 잊음을 당하게(피동)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를 형태소 분석하면 ‘잊다’ 어간에 피동 표현의 겹침이 아니라 ‘잊다’ 어간이 사동사가 된 후 피동 표현이 결합된 것이다.

‘잊혀진 계절’이라는 표현에서 발견되는 교육적 함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사와 학생에게 있어서, 잘못된 표현에 대한 규범적인 지도와 함께 ‘왜 그런 잘못된 표현이 생겨나거나 선호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고민을 통해서 그중에 일부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잊혀진 계절’처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지 문법 지식을 동원하여 따져 보는 과정에서 탐구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둘째, 문법 교육의 내용 면에서 ‘잊혀지다’가 ‘\*잊히다’라는 사동 표현에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겹친 것으로 설명하면 학교 문법의 범위를 뛰어

넘는 새로운 가설의 도입 없이 교과서 내의 설명만으로 ‘잊혀진 계절’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문법 범주의 교육 내용을 ‘사동문’, ‘피동문’을 가르친 다음에 ‘사동문의 피동’, ‘사동문의 사동’, ‘피동문의 사동’, ‘피동문의 피동’ 등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셋째, 필요에 따라 새말을 만들 수 있어 창조적인 국어 사용에 도움이 된다. 특히 이러한 창조적인 국어 사용이 필요한 문학 영역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어떤 비문법적인 표현들을 시적 허용이라고 알려 주고 암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또는 학생끼리 모둠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시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다만 동사에 따라 사동사의 경우 피동으로의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상적 재구형태’를 설정하게 되면 비문법적인 이중피동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비문법적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본고의 한계이다.

\* 본 논문은 2015. 4. 30. 투고되었으며, 2015. 5. 6. 심사가 시작되어 2015. 6. 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자료)

- 김종철 외(2012),『중학교 국어 ⑤』, 천재교과서.
- 김태철 외(2012),『중학교 국어 ⑤』, 비상교육.
- 남미영 외(2012),『중학교 국어 ⑥』, 교학사.
- 노미숙 외(2012),『중학교 국어 ⑤』, 천재교육.
- 민현식 외(2012),『중학교 국어 ⑤』, 좋은책신사고.
- 박경신 외(2012),『중학교 국어 ⑤』, 금성출판사.
- 방민호 외(2012),『중학교 국어 ⑤』, 지학사.
-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2000),『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 우한용 외(2012),『중학교 국어 ⑤』, 신사고.
- 윤여탁 외(2012),『중학교 국어 ⑤』, 미래엔.
- 이관규 외(2012),『중학교 국어 ⑤』, 비상교과서.
- 이삼형 외(2012),『중학교 국어 ⑤』, 두산동아.
- 장수익 외(2012),『중학교 국어 ⑤』, 대교.
- 전경원 외(2012),『중학교 국어 ⑤』, 두산동아.
- 한철우 외(2012),『중학교 국어 ⑤』, 비상교육.

### (논저)

- 구본관·고영근(2008),『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광해 외(2001),『국어지식탐구』, 박이정.
- 김동찬(2002),『조선어실용문법』, 박이정.
- 김세환(2014),「「경북 방언의 사동사와 사동 접미사의 변화」,『방언학』 제20집, 한국방언학회, pp. 149-171.
- 김영일(1980),『국어 괴동구문의 연구』,『부산교육대학논문집』 16집 1호, 부산교육대학, pp. 39-57.
- 김주원(1991),「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어학연구』 27집 3호, pp. 585-608.
- 나찬연(2009),『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 남기심(2001),『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 남수경(2011),『한국어 괴동문 연구』, 월인.
- 성낙수(2010),「학교 문법 품사 설정 및 용어 결정의 과정과 문제점」,『문법교육』 제12집, 한국문법교육학회, pp. 229-269.
- 왕문용(2006),「국정 문법 교과서의 괴동법 기술에 대한 고찰」,『국어교육』 119집, pp. 345-370.
- 유혜원(2000),「-아/어지다'의 의미 기능 연구」,『논항구조란 무엇인가』, 월인.

- 이관규(2004), 『(개정판)학교 문법론』, 월인.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상억(1999), 『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집문당.
- 이익섭(2008),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정택(2004), 「피동의 개념과 피동 서술어」, 『한국어학』 22, 한국어학회.
- 임홍빈(2000),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10집 2호, pp. 5-26.
- 전영철(2008), 「소위 이중피동문에 대하여」, 『언어학』 52호, pp. 79-101.
- 조오현(1995), 「「-어지다」와 「-어 지다」의 통사·의미」, 『겨레어문학』 19집, pp. 741-754.
- 최현배(1994), 『우리말본(3판)』, 정음문화사.

## ‘잊혀진 계절’의 문법성과 교육적 함의

김중수

대중가요의 제목인 ‘잊혀진 계절’에서 ‘잊혀진’이, ‘잊고 싶지 않았지만 제3의 주체가 화자로 하여금 계절을 잊게 하였고(사동), 계절의 입장에서는 화자의 행위에 곧바로 잊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주체에 의해 부림 받은 화자의 행위에 의해 잊음을 당하게(피동)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임을 논증하였다.

이를 형태소 분석하면 ‘잊다’ 어간에 피동 표현의 겹침이 아니라 ‘잊다’ 어간이 ‘잊히다’라는 사동사가 된 후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된 것이다.

‘잊혀진 계절’이라는 표현에서 발견되는 교육적 함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사와 학생에게 있어서, 잘못된 표현에 대한 규범적인 지도와 함께 ‘왜 그런 잘못된 표현이 생겨나거나 선호되는지’를 문법 지식을 동원하여 따져 보는 과정에서 탐구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둘째, 문법 교육의 내용 면에서 새로운 가설의 도입 없이 교과서 내의 설명만으로 ‘잊혀진 계절’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문법 범주의 교육 내용을 ‘사동문의 피동’, ‘사동문의 사동’, ‘피동문의 사동’, ‘피동문의 피동’ 등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셋째, 필요에 따라 새말을 만들 수 있어 창조적인 국어 사용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문학 감상을 할 때 그 작가만의 독창적인 문학적 표현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작품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핵심어 잊혀진 계절, 잊히지다, 이중 피동, 잉여 피동, 사동 후 피동

## ABSTRACT

# Grammaticality Judgment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about ‘It-hyeojin Gyejeol’

Kim Jungsu

‘It-hyeojin Gyejeol(the Forgotten Season)’ is the title of a popular song. ‘It-hyeojin’ means that:

I did not want to forget. Passing time made me forget the season. Therefore it is more appropriate “The season was forgotten by passing time” rather “The season was forgotten by me.” ‘It-hyeojin’ is not double passive but passive voice of causative verb. And its meaning is not ‘be forgotten’ but ‘make be forgotten’ in English.

‘It-hyeojin Gyejeol’ has Educational Implications.

First, teachers and student can explore together why the wrong expression is widely used.

Second, it is possible to describe that ‘It-hyeojin Gyejeol’ is grammatically correct expression. And expand the contents of grammar education in Korean education.

Thirdly, teachers can lead students to use Korean language creatively. The expression used in the literature can be analyzed more accurately by this proposal.

**KEYWORDS** It-hyeojin Gyejeol, Forgotten Season, Be forgotten, Passive voice of Causative verb, Double Passive